

뿌리기업 동반 성장...지역 제조업 경쟁력 견인

생기원 순천뿌리기술지원센터 '고투게더 매칭사업' 성과

전남 22개 시군 협력...기술개발·사업화 동시 지원 고용 20명·특허·인증 확대...산업 생태계 순환 구축

지역 뿌리기업을 겨냥한 상생형 기술지원 사업이 실질적인 매출 증가와 고용 창출로 이어지며 지역 제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단순 기술지원에 그치지 않고 사업화가 지연되는 구조가 성과를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24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순천뿌리기술지원센터(센터장 전재열·사진)에 따르면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참여한 '고투게더 지자체 매칭사업' 추진 결과, 최근 3년간 참여 기업 매출이 177억원 증가, 신규 고용 20명이 창출됐다. 해당 사업은 지자체와 연구원이 공동으



로 재원을 매칭해 지역 제조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동시에 지원하는 지역 상생형 모델이다. 전국 분산형 조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현장 애로 해결부터 사업화까지 단계별 지원을 이어온 것이 특징이다. 2023년에는 2억원 규모로 5개사를 지원해 매출 65억원 증가와 신규 고용 6명, 인증 4건을 기록했다. 2024년에는 2억6000만원을 투입해 6개사를 지원, 매출 65억 6300만원 증가와 고용 3명을 창출하며 사업 지속성과 확산 가능성을 입증했다.

지난해에는 사업 규모를 3억8600만원으로 확대하고 전남테크노파크의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과 연계 지원을 강화하면서 성과가 더욱 확대됐다. 현재 10개사를 대상으로 지원이 진행 중이며 매출 46억 8020만원 증가, 고용 11명, 인증 5건, 특허 2건, 논문 1건 등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현장 수요 기반으로 발굴된 과제가 정부 대형 연구개발 사업으로 확장, 산업 전반으로 파급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된 점이 주목받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예타대사 제안요청서 3건이 신규 기획·제출됐고, 총 167억2000만원 규모의 정부 수탁 과제 5건이 선정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이는 단순한 개별 기업 지원을 넘어 지

역 산업 전반의 구조 전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뿌리산업이 자동차·조선·에너지 등 지역 주력 산업의 기반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술 경쟁력 강화는 곧 지역 제조업 전반의 체질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남지역의 경우 중소 제조기업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를 갖고 있어 기술개발 역량 확보와 사업화 연계 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이번 사업처럼 현장 수요 중심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즉시 기술 지원과 사업화를 연계하는 방식은 기존의 단절된 지원 체계를 보완하는 대안으로 평가된다. 또 지자체와 연구기관이 재원을 공동 부담하는 매칭 구조는 지역 맞춤형 산업 정

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중앙정부 중심의 일괄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 산업 특성과 기업 수요를 반영한 지원 체계가 구축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매출과 고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후속 사업화 지원과 금융, 마케팅 연계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재열 순천뿌리기술지원센터장은 "지자체 매칭과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지역 기업이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동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 모범 사례"라며 "제조 산업의 첨단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i404@**



우성정공(주) 박희석 대표가 24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협의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광주경총, 유럽 창업 전략 들여다본다

27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서 조명진 박사 초청 금요포럼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가 유럽 주요 국가의 창의성과 창업 생태계를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광주경총은 오는 27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조명진 박사를 초청해 '유럽인의 창의성과 창업 아이디어'를 주제로 제1716회 금요조찬포럼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유럽 6개국의 창의성 유형과 창업 방식,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생태계 구조를 종합적으로 조명하는데 초점이

맞췄다. 강연에서는 국가별 특성이 구체적으로 소개된다. 독일의 체계적 창의성, 프랑스의 시각적 창의성, 영국의 대중적 창의성, 이탈리아의 고차원적 창의성 등 각국의 차별화된 접근 방식을 통해 창업 아이디어 발전 구조를 비교 분석할 예정이다. 조 박사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자문위원을 비롯해 스웨덴 국방연구소, 독일 국제안보연구원, 본국제군축센터 등에서 활동한 국제안보·정책 전문가로, 다수의 저서



를 통해 글로벌 경제 질서와 창의성 기반 성장 전략을 연구해왔다. 광주경총은 이번 포럼을 통해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창업 생태계 전반을 설계하는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다양한 요소가 결합된 '패키지형 지원'이 지역 창업 활성화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개인의 가치와 전통, 사회문제를 사업 아이템으로 연결하는 유럽식 창업 구조를 살펴보는 자리"라며 "지역에서도 정책·자본·공간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창업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

"미래산업·디지털 전환의 길 열어갈 터"

박희석 우성정공 대표, 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협의회회장 취임

광주·전남지역 무역업계 발전에 앞장 서고 있는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협의회가 새로운 수장을 맞이했다. 24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우성정공(주) 박희석 대표가 제12대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회장 이·취임식은 브리브 광주 바이롯데호텔 3층 연회장에서 지역 무역업계 및 유관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이날 회장으로 취임한 박희석 회장은

1993년 우성정공(주)를 설립해 자동차 및 가전제품 금형과 사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 2010년에는 무역의 날 1000만불 수출의 탑을, 우수자본재개발 유공자 포상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으며 2011년에는 세계 최초로 TT-TC 공법 3중사출금형을 개발하는 등 첨단 기술 개발에도 앞장섰다. 이 같은 산업분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16년에는 석탑산업훈장을 수훈하며 우리 지역 대표 기업인으로

서 자리매김했다. 박희석 신임회장은 "광주·전남지역은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실질적인 성장 플랫폼이자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며 "네트워크를 다져 나가고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맞서는 정보와 기회를 씬 없이 나누며 미래 산업과 디지털 전환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업협의회에서는 박희석 회장 뿐만 아니라, 광주전남의 주력 수출 업종별 부회장이 함께 선출됐으며, 제22차 광주전남 CEO포럼에서는 전남대학교 이철우 교수가 AI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윤용성 기자**

라마단 맞춰 말레이시아 공략...K-할랄 수출 확대

aT·관광공사, 미식·관광 연계 쿠알라룸푸르서 '화합의 밤'

이슬람 금식월 라마단을 계기로 한국 농식품과 관광을 결합한 'K-할랄' 전략이 동남아 무슬림 시장 공략의 교두보로 떠오르고 있다. 2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KTO)와 함께 최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라마단 화합의 밤(Ramadan Harmony Night)'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농식품 수출과 미식 관광을 연계한 'K-할랄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SNS를 통해 모집한 현지 무슬림 소비자 160명이 참여했다. 말레이시아는 전체 인구의 약 70%가 무슬림인 대표적인 할랄 시장으로, K-푸드 수요 확대가 두드러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라면류 수출은 전년 대비 12.9% 증가한 5만5000달러를 기록했으며, 딸기·샤인머스켓 등 신선 농산물 수출도 11.2% 늘었다. 여기에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한국관광공사(KTO)와 함께 최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라마단 화합의 밤(Ramadan Harmony Night)' 행사를 개최했다.

말레이시아 경제성장률을 4.5%로 전망하면서 성장 잠재력도 주목받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라마단 기간 일몰 후 첫 식사인 '부카푸아사(Buka Puasa)' 시간에 맞춰 할랄 인증을 받은 치킨, 떡볶이, 잡채 등 K-푸드를 선보였다. 특히 장시간 금식 이후 식사를 고려해 준비한 한국산 매실주스와 신선 과일 시식은 현지 참가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나주=조원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aT는 현지 유통 중인 K-할랄 제품을 소개하고 시식·시음 행사를 통해 소비자 접점을 넓혔다. 한국관광공사는 주요 관광지의 미식 콘텐츠와 할랄 인증 식당 정보를 함께 제공해 '방한 관광→K-푸드 소비'로 이어지는 구조를 제시했다. 행사 참가자에게는 라면, 과자, 음료 등으로 구성된 'K-할랄 식품 꾸러미'도 제공했다. 나주=조원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각종 필터&수처리 설비에 관한 모든 문제
(주)호원테크가 책임지겠습니다.

(주)호원테크

환경산업 개발을 일괄 추진하는 (주)호원테크는
설비기획, 시공,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수처리, 설비 및 모든 필터 전문회사입니다.

■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2번로 178
☎ 062)940-8221 · FAX 0629-945-8415 / HP 010-3646-8311